

"송진우, 대한민국 건설 초석 쌓은 민족주의자이자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자"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선생 기념사업회 '특별학술회의'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2024-02-19 16:25 송고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학술회의 '고하 송진우의 민족운동(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제공)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자, 타협과 포용의 정치가 겸 언론인 송진우 선생의 고뇌와 헌신은 이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양하고 체제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교훈을 제공할 것이다."

고하(古下)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3·1운동에서 건국운동'을 중심으로 송진우의 민족운동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이날 학술회의는 3부로 진행됐다. 발제는 1부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이사장, 2부 박명림 연세대 교수, 3부 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가 각각 맡았다.

김형석 이사장은 '한국 민족운동사에서 본 고하 송진우'라는 주제를 통해 '독립'과 '자유민주국가 건설'을 이끈 선구자로서의 송진우를 재조명했다. 그는 "송진우의 친일 행위는 근거가 빈약하고 3.1운동의 실질적 기획자이자 연출자였으며,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던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언론과 정치활동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을 쌓았다"고 평가했다.

박명림 명예교수는 '자유와 통합, 민주와 공화: 21세기를 위한 송진우의 사상과 실천'이라는 주제 속에 "공산주의는 반대했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수용해 민주적 의회적 방법으로 자유와 민주, 복지와 평등의 길을 제시했던 송진우의 민주공화국 구상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욱 명예교수는 '자유민주의 독립국가를 위한 송진우의 사상과 헌신적 실천'이란 주제에서 "송진우는 민족주의자이며 진보적인 자유민주주의자로 교육, 언론과 정치 활동에 헌신한 포용력 있는 훌륭한 지도자였다"며 "그의 고뇌와 헌신은 이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양하고 체제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교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하 송진우는 중앙학교 교장으로서 3·1운동을 주동했고, 동아일보 사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1945년 12월 30일 흉탄에 서거했다. 1963년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